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대의 의사소통 양상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현대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빠르고 즉각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줄임말의 무분별한 사용과 띄어쓰기 생략을 중심으로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카’, ‘자만추’, ‘갠소’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스카’는 ‘스터디 카페’,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갠소’는 ‘개인 소장’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은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줄임말은 연령, 직업, 인터넷 사용 빈도와 같은 사용자의 특성과 개인이 소속된 언어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사용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줄임말을 익숙하게 사용하지 않는 대상에게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이나 발표 등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줄임말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띄어쓰기를 보실까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두가지’와 ‘배우신분’. 여러분은 이 말들이 무슨 뜻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이 말들은 ‘한 두 가지’와 ‘한두 가지’, ‘배우신 분’과 ‘배우 신분’처럼, 어떻게 띄어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띄어쓰기를 생략하면 의사를 전달하는 속도가 약간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도나 전하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 띄어쓰기 규정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줄임말의 무분별한 사용과 띄어쓰기 생략을 중심으로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통해 의사소통 문화를 이끌어 가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③ 시각 자료를 통해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발표에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입] ◦ 현대의 의사소통 양상을 언급하고, 발표 주제가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임을 소개해야겠어.	①
[전개] ◦ 줄임말에 담긴 의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제시해야겠어. ◦ 사용자 및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 줄임말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언급해야겠어.	② ③
◦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어.	④
[정리] ◦ 청중에게 당부하고 싶은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⑤

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어요. 발표에서 언급된 띄어쓰기 규정에 대해 살펴보시다. 한글 맞춤법에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단어 중에서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서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고도 되어 있지요. 한글 맞춤법을 바탕으로 다음 온라인 대화에서 ㉠~㉣의 띄어쓰기가 올바른지 확인해 볼까요?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지원	정수야, 수지랑 내일 영화 보러 갈 건데 ㉠ 너같이갈래?
	오, ㉡ 내일이라면 좋아.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어디야? 나 매표소 앞인데 여기 ㉢ 나밖에 없네?
지원	우리 곧 ㉣ 도착할것같아. 좀 앉아 있어.
	여기 ㉤ 앉을데 없는데? 표 사고 기다리고 있을게.

학 생 : _____ [A]

선생님: 네, 맞습니다.

- ① ㉠의 ‘같이’는 조사가 아니라, 독립성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② ㉡의 ‘이라면’은 독립성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조사이기 때문에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 ③ ㉢의 ‘밖에’는 조사가 아니라, 독립성을 가진 단어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④ ㉣의 ‘같아’와 ㉤의 ‘같이’는 모두, 독립성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⑤ ㉣의 ‘것’과 ㉤의 ‘데’는 모두,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4~6] 다음은 학생회 협상 중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이번에 학생회 부서 중 하나에 자치 활동 추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학생회 주관 행사 중에서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축제의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지원금은 문화예술부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2: 저희 체육활동부는 학생 건강을 위한 활동이나 체육 대회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굣길 건강 증진 캠페인이나 학급 단합을 위한 체육 대회 이벤트 등을 정기적으로 해왔으나 작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가] 이러한 활동들을 알차게 운영하고 추후 축제에서 부서 활동에 관한 전시도 진행하려면 추가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학생 1: 아시다시피 축제를 준비할 때 동아리 부스 운영 지원이나 무대 설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올해 축제에 편성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학생 2: 그동안은 강당 무대 조명이나 방송 장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지난 겨울 방학에 조명과 방송 장비를 교체했기 때문에 작년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A]

학생 1: 그럼, 체육활동부에서 쓰기로 계획했던 기존 운영비를 저희에게 양보하는 것은 어떤가요? 추가 지원금이 체육활동부 운영비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학생 2: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1: 체육활동부가 추가 지원금을 받아 부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저희도 원활한 축제 준비를 위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제 2주 전쯤 체육활동부에서 축제 홍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축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B]

학생 2: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축제일에 저희 부서의 전시 공간으로 학생 접근성이 좋은 다목적실을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진행한 활동의 사진이나 결과물을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의견을 듣고 내년 활동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학생 1: 다른 동아리들은 기존 동아리실을 사용할 예정이니, 다목적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2: 네, 감사합니다.

4.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내세우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2’는 변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 1’의 발언 내용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얻게 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 공유하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⑤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제안을 수용한 뒤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제안하고 있다.

5. <보기>는 ‘학생 2’가 협상을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에 제시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

학생회에 바라는 점	학생 수 (명)	비율 (%)
점심시간 프로그램 운영	270	45
노래, 춤 이외에 다양한 축제 무대 공연 운영	180	30
온라인을 활용한 건의 방식 도입	120	20
기타	30	5

[자료 2] 주변 학교 점심시간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정리한 메모

- 캠페인 : 월별로 주제를 정해 진행하는 캠페인
- 독서 관련 : 좋아하는 책 소개, 독서 퀴즈
- 산책 관련 : 사제동행 산책, 학교 식물 관찰과 연계한 산책

[자료 3] ‘걷기’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다가 읽게 된 신문 기사

○○시는 최근 ‘함께 걷기’ 행사를 열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 진행 담당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이 신체 건강은 물론 관계 회복과 세대 간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행사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다.

- ① 축제 때 무대 공연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노래나 춤으로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 ②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함께 걷기’ 행사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행사의 취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 ③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점심시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 ④ 학교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산책 프로그램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건의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 ⑤ 점심시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바람을 고려해 사제동행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 건강 증진과 더불어 세대 간 소통도 도모하려고 합니다.

6. 다음은 협상 후 ‘학생 1’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협상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축제에 편성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 추가 지원금을 양보하게 되어서 아쉬웠어. 체육활동부는 추가 지원금으로 ㉡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대신에 우리는 ㉢ 체육활동부의 기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 축제가 잘 이루어지면 홍보도 중요한데 체육활동부가 ㉣ 축제 홍보를 도와주고, 대신에 체육활동부는 ㉤ 다목적실을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니 서로에게 잘된 것 같아.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주체 높임은 화자가 주체,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으)시-’, 주격 조사 ‘께서’, 특수 어휘 등을 통해 표현된다. 높여야 할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이 주어인 경우에 ‘-(으)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면 [자료]의 ㉠은 점이 ‘아버지께서 산에 다녀오셨다.’와 같다.

[자료]

㉠ 어머니는 눈이 아름다우시다.
㉡ 할머니께서는 책이 많으셔서 책을 자주 읽으신다.
㉢ 할아버지께서는 머리가 많이 아프셔서 일찍 주무신다.

- ① ㉠은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 ② ㉡는 주체를 직접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 ③ ㉢은 주체를 직접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를 사용했다
- ④ ㉠과 ㉢은 모두, 주체를 직접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 ⑤ ㉡와 ㉢은 모두,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8. <보기>는 중세 국어 자료이다.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하늘히(하늘+이) 도복실씩
[하늘이 도우시므로]
• 어미도 ㉡ 아드를(아들+을) 모르며
[어미도 아들을 모르며]
• 이 ㉢ 쁘들(쁘+을) 닛디 마르쇼셔
[이 뜻을 잊지 마십시오.]
• ㉣ 耶輸 (耶輸+ㅣ) 그 기별 드르시고
[야수가 그 기별을 들으시고]

- ① ㉠에서 ㅎ 종성 체언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에서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에서는 ㉠과 달리, 모음 조화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에서는 ㉠과 달리, 주격 조사 ‘ㅣ’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 ㉢에서 모두, 이어 적기를 확인할 수 있군.

9. <보기>에 드러난 시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내 친구가 맑은 하늘을 가리킨다.
ㄴ. 그녀는 집에 가는 동생을 잡는다.
ㄷ. 이것은 그가 아까 나에게 준 그림이다.
ㄹ. 나는 동생이 심은 사과나무를 지금 본다.

- ① ㄱ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과거 시제가, 선어말 어미를 통해 현재 시제가 실현된다.
- ② 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통해 현재 시제가 실현된다.
- ③ ㄷ에서는 시간 부사와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과거 시제가 실현된다.
- ④ ㄹ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과거 시제가 실현된다.
- ⑤ ㄹ에서는 시간 부사와 선어말 어미를 통해 현재 시제가 실현된다.

10.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새로운 하나의 음운이 되는 축약,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가 있습니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를 고려해 [자료]의 ㉠~㉣에 나타난 음운 변동의 유형을 찾고, 그에 따른 음운 개수의 변화 양상을 말해 볼까요?

학 생 : _____ [A]

선생님 : 네, 맞습니다.

[자료]

내 마음 ㉠ 깊숙한[깊쑤칸] 곳에 ㉡ 가득히[가드키] 자리한 기억이 떠오른다. 그해 ㉢ 늦여름[느너름], ㉣ 불게[불께] 타는 노을과 ㉤ 단풍잎[단풍닙], ㉥ 따뜻한[따뜨탄] 바람과 함께 내 귀를 ㉦ 간지럽히던[간지러피던] 너의 음성이 어제처럼 선명하다.

- ① ㉠은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습니다.
- ② ㉡은 교체와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 ③ ㉢은 교체와 탈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습니다.
- ④ ㉠과 ㉡은 모두,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습니다.
- ⑤ ㉡과 ㉣은 모두, 첨가와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1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나라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하나뿐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무척 비싼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여러 개 있다면 기업 간 가격 및 기술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 간 경쟁은 전체 국민의 행복의 크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을 마련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초기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권력이 국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자유방임의 결과는 독점 자본의 급격한 성장으로 나타났다. 독점 자본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과다한 이윤을 추구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독점 자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시장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독점규제법이 마련된 것이다. 즉, 독점규제법은 자유 경쟁의 정신을 ㉠ 회생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그러나 독점규제법은 중소기업과 같은 약소 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점규제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으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기업 결합이다. 기업 결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비용 절감과 같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 궁극적으로 경쟁 사업자를 없애는 것과 같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여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 결합을 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 제한 효과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기업 결합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 분야에서 제1위가 된다면 이는 해당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기업 결합의 제한을 통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점규제법을 통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는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발판이 된다.

(나)

특허와 같은 지식 재산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허권을 인정받은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권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거나, 해당 특허가 필수 생산 요소와 같은 유력한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는 특허권의 행사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특허권을

행사하는 자의 행위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을까?

공정거래법에서는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을 행사하는 자의 행위가 지식 재산을 남용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당하게’는 지식 재산권의 행사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가 있다. 특허권자가 이론 기술적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시료 부과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실시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의 이용 범위를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를 허락하거나, 실시 허락 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건을 ㉤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 따라 이용 범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특허권의 실시를 위해 직접 필요하지 않은 기술을 함께 구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부과된 조건이 해당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지, 해당 조건이 관련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법의 내용만 본다면 독점규제법과 지식 재산 제도는 ㉥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지식 재산 제도는 지식 재산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은 자본이 지나치게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기술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는 가정을 근간으로 성립되었으며, 지식 재산 제도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음을 고려할 때, 둘은 모두 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공동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독점규제법이 지닌 의의를, (나)는 지식 재산 제도의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독점규제법이 등장한 배경을, (나)는 지식 재산 제도가 강화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독점규제법이 마련된 취지를, (나)는 지식 재산권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각국의 독점규제법이 보이는 차이점을, (나)는 지식 재산 제도와 독점규제법이 지닌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독점규제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된 양상을, (나)는 지식 재산권의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독점 자본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였다.
- ② 독점 자본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 ③ 세계 여러 나라가 독점규제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 ④ 독점규제법은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경제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줄이고자 한다.
- ⑤ 기업 결합이 사전 신고의 대상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이다.

13.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작성해 봅시다.

질문 1 지식 재산 제도가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혁신적인 기술을 창조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①

질문 2 지식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거래 상대방에 따라 실시료를 다르게 부과하여 효율성 증대 효과보다 큰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

..... ②

○ 특허권의 실시를 허락할 때 특허 발명을 부분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 ③

질문 3 독점규제법과 지식 재산 제도가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독점규제법은 자본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기술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 ④

○ 지식 재산 제도는 사람들이 기술 혁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인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 ⑤

1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 경제에서 약소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당위적인 결과이다.
- ② 경제력이 높은 주체가 시장 경제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공권력의 자유방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 ③ 공권력이 약자 보호를 위해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초기 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위기를 더 심화할 수 있다.
- ④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 질서의 확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⑤ 시장 경제 내 특정 주체에게 직접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15. ㉡~㉣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파괴되어 가던 정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라는 의미이다.
- ② ㉢: 기업 결합을 시도할 때 ‘목표하던 대로’라는 의미이다.
- ③ ㉣: 자신이 지닌 권리를 ‘실현할’이라는 의미이다.
- ④ ㉡: 요구하는 것을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여 맡게 할’이라는 의미이다.
- ⑤ ㉢: 둘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이라는 의미이다.

16.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 A는 해당 기술의 실시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이용한 휴대폰에 사용되는 모뎀칩을 직접 제조·판매한다. A의 기술을 이용하는 휴대폰이 널리 이용되는 상황에서, A는 모뎀칩 시장에 신규 진입 사업자인 B가 등장하자 자사의 모뎀칩 이용 여부에 따라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의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였다. 휴대폰 제조 업체들은 A가 제공하는 실시료 할인을 받기 위해 A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모뎀칩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였다. 이후 A의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40%가 되었으며, 시장 점유율이 20%인 B의 기업과 합병하기로 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① A가 실시료 할인을 제공한 것이 부당한지 판단하려면 할인이 특허 발명의 실시에 필수적인지 고려해야겠군.
- ② A의 기업과 B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한다면 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기업과 B의 기업이 합병한다면 모뎀칩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간주할 수 있겠군.
- ④ A가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의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것은 모뎀칩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B가 모뎀칩 시장에 진입하기 전 A가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의 실시료로 수익을 창출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겠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칸트와 헤겔은 자유를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으로 보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 의미를 체계화하였다. 칸트는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되는 현상계와, 이성에 의해 사유될 수 있을 뿐 경험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예지계를 구분하여 자유를 설명하였다. 현상계의 모든 사건은 앞선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현상계에서 인간의 의지는 쾌를 추구하고 불쾌를 피하고자 하는 감각적 욕구 등 이성이 아닌 것이 원인이 되어 규정되고, 인간은 이러한 의지에 따라 행위한다. 예를 들어 배가 아파서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원인이 되어 음식 섭취 거부라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칸트는 이러한 현상계에서의 행위를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다.

㉠ 칸트는 자유가 현상계가 아니라 예지계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예지계에서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행위 법칙인 도덕 법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할 수 있는 자기입법 능력을 지닌다. 인간이 특정한 상황에서 세운 주관적 행위 원리를 준칙이라고 하는데, 칸트는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보편성이란 어떤 준칙을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했을 때 모순 없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며, 보편성이 확보된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그는 이러한 도덕 법칙에 따라, 이성이 원인이 되어 의지를 규정하고 행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의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굶주린 아이를 위해 ‘타인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도덕 법칙에 따라 배고픔을 참고 음식을 양보하는 경우, 이성이 원인이 되어 행위에 이른 것으로 이때 인간은 자유를 의식하게 된다.

한편 ㉡ 헤겔은 개인의 의지가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구현될 때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자유를 ‘구체적 자유’라고 하였다. 헤겔에 따르면 자유는 가족, 시민 사회, 국가라는 관계망 속에서 점점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현된다. 헤겔은 먼저 가족 단계에서는 사랑이라는 정서에 기초하여 관계 속에서 자유가 실현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약하다고 보았다. 시민 사회 단계에서는 개인이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각종 제도가 수립되어 자유의 실현이 보다 구체화되지만,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여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국가 단계에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로 인해 법적 보호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해져 자유의 실현이 가장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헤겔에 따르면 이러한 법과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완성된 형태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다.

헤겔은 자유가 종종 개인의 선택 가능성으로만 잘못 이해된다고 보고, 이러한 자유를 ‘추상적 자유’라고 비판하였다. 추상적 자유는 법이나 제도를 구속으로 간주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헤겔은 추상적 자유가 제도적 맥락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공동체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파괴적 성향을 띌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헤겔은 자유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17.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칸트는 자유가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 이외의 것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다.
- ③ 헤겔은 개인의 선택 가능성만을 강조할 때 자유가 공동체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헤겔은 제도의 수립으로 인해 시민 사회 단계에서 가족 단계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 ⑤ 헤겔은 국가 단계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18. ㉠의 입장에서 ㉡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 경험과 이성 간 위계를 설정하여 자유가 관계망의 확장에 따라 위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오인하고 있다.
- ② 자기입법에 의해 스스로에게 부과된 도덕 법칙을 중시하여 감각적 욕구가 의지를 규정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있다.
- ③ 행위의 원인을 경험과 이성으로만 제한하여 자유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랑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자유를 개인의 이성에만 의존해 규정하여 자유가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인간을 현상계와 예지계 모두에 속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앞선 원인에 의해 자유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고 있다.

19. 다음은 공익 신고자 A의 인터뷰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년 0월 00일

□□일보

기자: 이번에 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공익 신고를 하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A: 네. 얼마 전 직원 B가 핵심 기술을 외국 기업에 넘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들더군요. 만약 모든 사람이 이익을 위해 기술을 유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 결국 유출할 기술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고민 끝에 저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라고 결정하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 B가 뇌물을 받고 일부 기술을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죠. 너무 화가 나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온라인에 폭로할까 하는 충동이 들었지만, 그랬을 때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으로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① 칸트는 A의 고민을 준칙이 모순 없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보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겠군.
- ② 칸트는 B의 제안을 거부한 A의 행위를 통해 A가 자유를 의식할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헤겔은 A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을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라고 보겠군.
- ④ 헤겔은 B의 행위를 온라인에 폭로하려는 A의 충동을 파괴적인 성향을 띌 수 있는 것으로 보겠군.
- ⑤ 헤겔은 A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을 통해 완성된 형태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겠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경전달물질은 인간의 뇌 곳곳으로 이동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파민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는 등 행동 조절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도파민이 복측 피개 영역에서 측좌핵, 전전두엽피질로 연결되는 보상 회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보상 회로의 신경 세포 활성화가 조절된다. 복측 피개 영역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측좌핵으로 전달되는데, 측좌핵이 활성화되면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활성화가 억제되면 동기 부여가 사라진다. 이후 도파민은 전전두엽피질로 전달되어 적절한 행동 반응을 하게 한다.

보상 회로의 측좌핵은 기대한 보상을 얻을 때나 보상을 기대할 만한 단서를 접했을 때 활성화되며, 보상을 얻을 때보다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 더 활성화된다. 또한 측좌핵의 활성화는 보상 예측 오류와도 관련이 있는데, ㉠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을 얻거나 기대 이상의 보상을 얻으면 활성화되고 보상이 기대보다 못하면 활성화가 억제된다. 반면 기대한 것과 동일한 보상은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측좌핵의 활성화 정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보상 회로를 구성하는 신경 세포 표면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는 도파민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신경 세포에 도파민 신호가 전달되도록 해 주며, D1수용체와 D2수용체로 나뉜다. 도파민 수용체에 도파민이 결합하여 신경 세포의 활성화가 조절되는데, 활성화 조절은 cAMP를 통해 가능하다. cAMP는 신경 세포 내부에서 신경전달물질 신호를 증폭하는 2차 전달자이다. 도파민이 결합한 D1수용체는 cAMP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D2수용체는 cAMP의 생산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거나 활성화가 억제된다.

특정 약물이나 행동에 의한 중독은 보상 회로의 ㉡ 민감화와 ㉢ 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상을 주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상 회로는 동일한 자극에 예전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는 민감화를 겪을 수 있다. 민감화가 일어나면 특정 자극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특정 약물이나 행동에 대해 도파민 수용체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 수용체는 신호의 전달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수용체의 개수를 줄여 수용체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수준의 보상을 위해서 더 크고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민감화와 내성은 중독이 생기는 과정에서 각각 발생하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20.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도파민 신호의 전달 강도는 수용체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 ② 민감화가 일어나면 내성이 생기지 않아도 중독이 생길 수 있다.
- ③ 보상 회로의 신경 세포 표면에 있는 D1수용체와 D2수용체는 도파민에만 결합한다.
- ④ 신경 세포 내부에서 신호가 증폭되면 2차 전달자는 신경전달물질의 생산을 감소시킨다.
- ⑤ 인간이 보상을 얻기 위한 적절한 행동 반응을 하게 하려면 복측 피개 영역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전전두엽피질로 전달되어야 한다.

21.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줄을 잘 서서 뜻밖의 칭찬을 받은 아이가 칭찬을 받은 후 기뻐서 줄을 잘 서려고 한다.
- ②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투자를 시도했던 사람이 이익을 본 후 만족하여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 ③ 꼬리를 흔들며 반겨 줄 것이라고 생각해 개를 쓰다듬은 동생이 개가 짖자 무서워서 다음에는 쓰다듬지 않으려고 한다.
- ④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 없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성적이 향상된 후 성취감을 느껴 계속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 ⑤ 쿠폰 제공을 기대하고 상품 후기를 쓴 사람이 쿠폰과 함께 적립금까지 받자 기분이 좋아서 상품 후기를 또 쓰려고 한다.

22.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와 달리, 도파민 신호의 전달 강도가 약해질 때 생길 수 있다.
- ② ㉢는 ㉡와 달리, 같은 수준의 자극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 ③ ㉡와 ㉢는 모두, 도파민 수용체의 개수가 변하면서 보상 회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 ④ ㉡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는 특정 행동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 ⑤ ㉡는 특정 자극을 제외한 다른 자극에 둔감해지는, ㉢는 이전과 같은 자극으로 예전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A는 디저트 사진을 SNS에 올리고 ‘좋아요’ 알림이 뜨기를 기다렸지만 알림이 뜨지 않아 실망했다. 한동안 사진을 올리지 않던 A는 얼마 후 ‘좋아요’ 알림이 뜨기를 기대하며 꽃 사진을 올렸다. 꽃 사진에는 ‘좋아요’ 알림이 자주 떴고, 이것이 행복했던 A는 알림을 받기 위해 매일 꽃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 B는 발표에 관심이 없었는데, 발표를 하면 사탕을 주신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사탕 먹는 상상을 하며 발표 준비를 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신 사탕 바구니를 본 B는 사탕을 먹을 수 있다는 설렘을 느꼈다. B는 발표 후 사탕을 받았다. 다음 시간이 되자, B는 똑같은 사탕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발표를 했고 그 사탕을 받았다.

- ① A가 한동안 사진을 올리지 않은 것에는, 신경 세포 활성화가 억제된 것이 영향을 주었겠군.
- ② A가 매일 꽃 사진을 올린 것에는, cAMP 생산을 증가시키는 수용체가 신경 세포의 활성화를 조절한 것이 영향을 주었겠군.
- ③ B가 발표 준비를 한 것에는, cAMP에 의해 신경 세포 내부에서 도파민 신호가 증폭된 것이 영향을 주었겠군.
- ④ B가 선생님이 가지고 온 바구니를 봤을 때, 측좌핵이 활성화되어 보상을 추구하려 했겠군.
- ⑤ B가 다음 시간이 되어 똑같은 사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보다 그 사탕을 받았을 때, D1수용체에 의해 측좌핵이 더 활성화되었겠군.

[24~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공론화’를 들 수 있다. 공론화는 어떤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숙의와 학습을 통해 정제되고 합의된 의견을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하며, ‘공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론은 다수가 모여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수렴되며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회 대중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의미하는 여론과는 다르다.

공론화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돕는 기능을 한다. 공론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의견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공론화는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돕는 기능을 한다. 공론화의 과정에서 정책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참여자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사안에 대해 숙의한다. 이때 입장에 따라 상호 대립되는 정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공동으로 확인하는 등 정보의 진위와 중요성을 함께 확인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며 공공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제된 합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구성원들이 정책에 대해 순응하지 않는 정책 불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정책은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를 유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데, 만약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 불응이 발생한다면 해당 정책이 사람들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불응을 줄이고 구성원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성공을 담보해야 한다.

구성원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불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응의 원인 중 하나는 대상 집단이 정책에 의혹을 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성원이 정책 목표에 동의하지 않거나,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채택된 수단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응의 원인이 정책 목표에 있는 것이므로 정책 목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전문가의 설득, 정보 제시 등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책 불응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정책의 내용이 대상 집단에게 명료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도 불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응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내용을 좀 더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 집단이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민의 의

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주민 공청회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나는 주민 공청회 도입에 찬성한다. 주민 공청회 도입이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주민 공청회가 정책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민들이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별하고 관련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 전문가 김○○은 공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 및 논의 과정이 정책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양질의 정책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공청회를 통해 정책 불응을 줄일 수 있다. 공청회를 통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그 효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고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시의 정책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시에서 주민 공청회 이후 집행된 정책이 그렇지 않은 정책에 비해 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의 순응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주민 공청회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고 정책 결정에 드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주민 공청회 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

[A] 청회에서 갈등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정책은 질이 떨어지거나 불응을 야기하여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주민 공청회의 실시가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 공청회를 도입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4.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가)와 관련하여,

- 공론화의 개념은 무엇일까? ①
- 공론이 여론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②

(나)와 관련하여,

- 정책 불응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③
- 정책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④
- 정책 불응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⑤

25.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공론화의 과정에 주목하고, 구성원들의 정보 교환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 판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가)에서 공론화의 목표에 주목하고, 공론화는 속의 과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견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③ (가)에서 공론화의 기능에 주목하고, 공론화를 통해 구성원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정책의 목표에 주목하고, 정책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해 대상 집단에게 정책의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⑤ (나)에서 정책 불응의 해결 방안에 주목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수단의 효과를 밝힘으로써 정책 불응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26. 다음은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다)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논증하는 글 쓰기 자기 평가 점검 항목]

- ☐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였는가?
- ☐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는가?
- ☐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였는가?
- ☐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였는가?

- ① 주민 공청회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주장으로 제시한다.
- ② 주민 공청회 도입이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이유로 제시한다.
- ③ 주민 공청회가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한다.
- ④ 주민 공청회가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예상 반론으로 제시한다.
- ⑤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박으로 제시한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갈등은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 또한 지니고 있다. 순기능으로서의 갈등은 조직 내에 잠재해 있는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갈등은 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자발적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집단의 역동성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다.

— ◇◇학회 논문 자료 —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공론화로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공청회에서 생기는 갈등이 집단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정제된 합의 의견 형성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잠재된 문제의 해결 기회가 공청회의 갈등을 통해 마련된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전문가가 정책 목표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주민 간 갈등이 집단의 소통을 촉진한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정책 불응의 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정책 불응으로 인한 갈등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돕는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변화에 대한 동의를 구성원 간 갈등을 통해 얻어 낸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28~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배드민턴 연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적은 [주간 활동 노트]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여 교지에 실으려 함.

[초고]

학급 대표로 배드민턴 복식 대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걱정이 먼저 들었다. 운동을 좋아해 이것저것 해 봤지만 배드민턴은 단식 경기만 재미 삼아 해 봤을 뿐 복식 경기는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부족한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배드민턴 연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처음 며칠은 체력 훈련과 기본기 다지기로 시간을 보냈다. 초반에는 체력이 부족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발놀림이 늦어 셔틀콕을 놓치는 일이 많았고 기본기가 부족해 자세가 어색했다. 훈련을 반복하자 체력이 좋아져 발놀림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셔틀콕 받는 자세를 고치자 셔틀콕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보낼 수 있었

다. 변화가 생기니 성취감도 컸다. 그 후 복식 경기의 코트 규격을 배우고 본격적인 연습을 했는데 복식 경기는 처음이라 힘들었다. 복식 경기의 코트는 단식에 비해 가로 폭이 넓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나는 단식 경기의 코트 규격을 떠올리며 경기를 하고는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적응해 갈 수 있었다.

더불어 복식 파트너와의 연습이 인상 깊었다. 처음에는 서로 타이밍이 어긋나 자주 셔틀콕을 놓쳤다. 하지만 신호를 주고받으며 점점 호흡이 맞아 갔다. 그 과정에서 체육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정이 늘 순탄할 수는 없지만 힘든 만큼 배우는 것이 많을 거야.”라는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힘든 들었지만 노력을 통해 드디어 씨앗의 싹을 틔운 것 같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번 배드민턴 연습을 통해 깨달은 것은 실력 향상의 핵심은 ‘인내와 협동’이라는 점이다. 만약 내가 힘든 연습을 견디지 못하고 대충 연습했다면 실력은 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 서로 협동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회에서 이기든 지든 이 깨달음이 내게는 이미 값진 성과였다.

나는 그동안 좋아하는 운동만 즐겨 해 왔는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배드민턴 연습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

28. 다음은 [주간 활동 노트]의 일부이다. ㉠~㉤이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간 활동 노트	반영
8월 넷째 주	
- 학급 대표로 배드민턴 복식 대회에 나가게 됨, ↳ 너무 걱정돼, 부족한 실력을 끌어올려야겠어,	㉠
9월 첫째 주	
- 체력 훈련과 기본기 다지기를 함, ↳ 연습을 하니 변화가 있어서 성취감이 컸어,	㉡
- 배드민턴 복식 경기 코트의 규격에 대해 배움, ↳ 복식 경기에 적응하기 힘들었어,	㉢
9월 둘째 주	
- 복식 파트너와 복식 경기를 연습함, ↳ 다음에는 신호를 주고받는 연습을 해 보는 건 어떨까?	㉣
9월 셋째 주	
- 복식 파트너와 연습할 때 신호를 주고받음, ↳ 힘들지만 만족감을 느껴서,	㉤
- 배드민턴 연습을 통해 인내와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음,	

- ㉠을 반영하여, 배드민턴 연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였다.
- ㉡을 반영하여, 체력 훈련과 기본기 다지기를 통해 나타난 변화를 구체화하였다.
- ㉢을 반영하여,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원인을 덧붙였다.
- ㉣을 반영하여, 복식 파트너에게 신호를 주고받는 연습을 제안했을 때 떠올린 생각을 덧붙였다.
- ㉤을 반영하여, 복식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며 연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 느낀 감정을 구체화하였다.

29. ‘초고’의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문단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이 배드민턴 연습을 하는 모습을 서술하였다.
- ② 2문단에서는 배드민턴 경기 종목들의 공통점을 나열하여 배드민턴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 ③ 3문단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배드민턴 파트너와의 갈등을 서술하였다.
- ④ 4문단에서는 속담을 활용하여 배드민턴 연습 과정에 대한 반응을 서술하였다.
- ⑤ 4문단에서는 배드민턴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상황을 가정하여 배드민턴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서술하였다.

30. 다음은 ‘초고’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장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나눈 대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 잘 읽었어. 편집부에서 함께 검토해 봤는데, 마지막 문단을 고쳐 써 줄 수 있을까?

㉠ 내용을 삭제하고, ㉡ 추가하면 좋겠어.

응. 마지막 문단만 수정해서 보낼게.

나는 그동안 좋아하는 운동만 즐겨 해 왔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잘 몰랐던 배드민턴에 대해 많이 배우고 소중한 깨달음도 얻게 되었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배드민턴 연습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수정했는데 어때?

오, 좋다! 고마워.

- | ㉠ | ㉡ |
|---------------|-------------------|
| ①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
| ②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정보를 |
| ③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 프로그램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
| ④ 다른 문단과 중복되는 |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
| ⑤ 다른 문단과 중복되는 | 프로그램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점치는 사람이 산통을 흔들고 점을 치더니 이윽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대는 네 번 죽을 운수에서 한 번은 면하였네. 그러나 앞으로 닥칠 세 번 죽을 운수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고서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더 이상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수경이 이 말을 듣고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여 일어나 절하고 말했다.

“화복길흉(禍福吉凶)은 사람의 운수에 달려 있을 것입시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죽으면 만 리 밖에서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모친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바라건대 점술가께서는 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정해진 죽을 액을 막을 수 있도록 방책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서는 계속해서 울었다.

수경이 울음을 터뜨리자 점쟁이가 수경에게 말하였다.

“임의로 액을 막을 수 있다면 어찌 운수가 불길한 사람이 있겠는가? 부질없는 말 하지 말고 곧 고향에 돌아가 모친의 얼굴이나 다시 뵈도록 하여라.”

하니 수경이 다시 **애걸**하였다.

“저는 혈혈단신 외아들로 어린 시절 일찌감치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분수에 맞지 않게 과거에 참여하고자 하여 모친께서 말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경성에 왔습니다. 제가 죽을 운수가 세 번이나 있으나 다행히 점 잘 치는 선생님을 만났으니 이 액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시면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니 그 점쟁이가 말했다.

“내가 액을 막을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 줄 것이니 그대는 명심하고 간수하라.”

하고 상자를 열어 백지 한 장을 내어놓고 누런 색깔로 대나무 하나를 그려 주며 말했다.

[B] “앞으로 겪을 두 번의 액도 흉악하고 참혹하지만 그래도 천만요행(千萬要行)으로 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닥칠 일은 더욱 흉악하고 참혹하여 감당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이것을 내어놓으면 너를 구해 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그야말로 귀 막고 방을 흔드는 격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 두 번의 위기를 모면한 수경은 혼인 첫날밤에 신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위기에 처한다. 이전에 수경과 인연이 있었던 이 소저는 수경이 점쟁이에게 받은 그림을 보고 백황죽을 잡아 오게 한다.

그래서 관원이 또 묻기를

“백황죽은 그 근본이 집안일하는 종인데 어찌 대감의 존전에서 감히 수청을 든다는 것이냐?”

하니 그 아이가 대답했다.

“황죽이 근본으로는 이 맥의 집안일하는 종이었으나 사람됨이 총명하여 일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감이 특별히 아끼시어 수청을 들도록 시키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관원이 나졸을 명하여 바로 사랑에 들어가 백황죽을 잡아내어 결박하여 관아로 돌아왔다. 이에 이 소저가 또 말을 전하기를

“**그놈의 호패를 찾아 확인하라.**”

하였다. 관원이 그 말대로 호패를 떼어 보니 과연 백황죽이라 되어 있었다.

관원이 백황죽의 호패를 확인하고 나니 소저가 그제야 여러 관원에게 전갈하였다.

“분수를 아는 것은 사람마다 중합니다. 정 한림이 그 소저와 더불어 부부의 의를 맺을 적에 첫날밤에 정이 깊었습니다. 하물며 정 한림은 지방에서 자라나고 김 소저는 경성의 심규(深閨)에서 자랐으니 무슨 극형으로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하였습니다. 그 집 노복 중에 방탕한 놈이 있어 예전에 김 소저와 간통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혼례일이 되니 분기를 참지 못하여 한밤중에 신방으로 돌입하여 정 한림을 죽이려다가 잘못하여 소저를 죽였다고 의혹하였습

니다.

정 한림이 그놈이 들어오는 것을 살펴보고 즉시 몸을 병풍 뒤에 감추었기 때문에 다행히 목숨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밤중인지라 증언할 사람이 없어 해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해 물을 곳도 없었으나 그 욕이 살펴보니 그 그림의 뜻이 종이는 희고 누런색으로 대나무를 그린 데 있었습니다. 이는 성이 ‘백(白)’가요, 이름이 ‘황죽(黃竹)’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이런 일을 모르고 사건을 해결하고 판결하겠습니까?

이제 바빠 그놈을 극형으로 엄히 문책하시면 자연히 알게 되실 것이니 시험하여 보소서. 저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오니 부디 사건을 잘 다스려 주옵소서.”

이어서 소저는 시비를 명하여 교자를 타고 본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여러 관원들이 소저의 전갈을 들으니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과 경계(警戒)가 밝고 뚜렷**하였다. 소저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비범하고 또한 신기하다고 깨달으며 여러 관원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인해 진흙빛이 되었다.

관원들이 백황죽을 형틀에 올려 매고 엄한 형벌로 국문하니 황죽이 견디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세세히 털어놓**았다.

— 작자 미상, 「정수경전」 —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경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과거 시험을 보려고 경성에 왔다.
 - ② 관원은 백황죽이 신임받는 종이라 그를 잡아 오기를 망설였다.
 - ③ 이 소저는 사건의 경위를 김 소저와 노복의 관계를 바탕으로 추측하였다.
 - ④ 점쟁이는 죽을 액을 막으려면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 수경에게 권유하였다.
 - ⑤ 수경은 죽을 운수를 이미 한 번 모면했기에 앞으로의 액운들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의 행적을 들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려 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 ③ [A]에서는 타인에 대한 걱정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도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A]에서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방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이 겪을 미래의 일을 예견하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 소설에서 인물이 마주하는 운명은 고난이나 죽음과 같은 위기일 때가 많으며, 인물은 운명에 순응하거나 이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정수경전」에서는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이 가해자, 피해자, 문제 해결자로서 서사를 이끌어 가는데, 가해자로 의심받던 남성 주인공이 여성 조력자의 도움으로 운명을 극복해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특히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 조력자는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지니고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수경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며 ‘애걸하’는 것에서, 운명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이 소저가 ‘그놈의 호패를 찾아 확인하’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 해결자로서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이 소저가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에서, 조력자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함을 알 수 있군.
 ④ 관원들이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과 경계가 밝고 뚜렷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여성 조력자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확인할 수 있군.
 ⑤ 백황죽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세세히 털어놓’은 것에서, 가해자로 의심받던 주인공이 운명을 극복해 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봄날이 따뜻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찹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말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건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蔞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A]

[B]

[C]

배를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많다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회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D]

[E]

— 정훈, 「탄궁가」 —

* 안표: 안회(顔回)의 표주박.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살면서도 즐거워하였음.

* 원헌: 공자의 제자로 궁핍함 속에서도 청빈하게 살았음.

* 장초의 무지: 『시경』에 나오는 말. 부역으로 고통을 받던 백성들이,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하였음.

(나)

진사 장중거는 남다른 호걸이다. 키는 여덟 자를 넘고 우뚝한 기상이 있어 자질구레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다. 천성이 술을 좋아하고 호기가 있어 취하면 실언이 많았다. 이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귀찮게 여겨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친구들 사이에도 비난하는 말들이 들끓어, **범으로 엮어 넣으려는 자까지 생겼다.** 중거 또한 후회하며 말했다.

“내가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겠구나.”

비난을 피하고 위험을 멀리할 방법을 생각한 끝에, 방 하나를 치워 문을 단아걸고 주렴을 내리고 살면서, 크게 ‘이존(以存)’이라 써서 방문에 걸어 놓았다. 『주역』에서 “용과 뱀이 숨어 사는 것은 제 몸을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대개 거기에서 취해 온 것이다.

하루아침에 함께 놀던 술친구들을 사절하며 말했다.

“자네들은 그만 오게. 나는 내 몸을 보존해야겠네.”

내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중거가 몸을 보존하려는 방법이 여기에 그친다면 해를 면하기 어려울 게야. 비록 독실하고 경건했던 중자라도 평생토록 지켜 가며 외우다시피 한 바가 어떠했는가? 항상 아침저녁도 보전하지 못할 것처럼 지내다가 죽는 날에 이르러서야 손발을 내보이며 비로소 온전히 살다 돌아감을 다행으로 여겼네.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한 집을 미루어 한 지역을 알 수 있고 지역을 미루어 세상을 알 수 있네. 세상은 저처럼 크지만 일반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발을 들일 땅조차 거의 없다네. 하루 동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증험해 보면 요행히 살고 요행히 죽음을 면하고 있을 뿐이네. 지금 중거는 외물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 밀실에 숨어 살면서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 자기 몸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네. 비록 발자취를 없애고 그림자를 감추어 스스로 죄수처럼 지낸다 하더라도 마침내 남들의 의혹을 자아내고 사람들의 분노를 집중시키게 될 뿐이네. 몸을 보존하는 방법이 또한 서투르지 않은가?”

(중략)

중거는 송구한 기색을 짓다가 잠시 후에 말했다.
“그대의 말과 같다면 ㉠ 나의 여덟 자 몸을 끌고 장차 어디로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나는 다시 말했다.

“나는 충분히 그대의 몸을 꿰구멍이나 눈구멍 속에 집어넣을 수 있네. 비록 하늘과 땅이 크고 세상이 넓다지만 눈구멍이나 꿰구멍보다 더 여유롭고 넓을 수는 없네. 그대는 이 속에 숨고 싶은가? 무릇 사람과 사물의 접촉과 사물과 이치의 만남에는 도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일러 예(禮)라고 하네. 자네가 자네 몸 이기기를 큰 적을 막는 것같이 해서, 이 예에 따라 절제하고 이 예에 따라 기준을 세워 그 예가 아닌 것은 귀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면 몸을 숨기는 데에 넓고 넓어 여지가 있게 된다네. 눈이 몸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네. 예가 아닌 것을 눈에 접하지 않는다면 몸은 남의 눈 흘김에 걸리지 않을 것이네. 입의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네. 그 예가 아닌 것은 입에 올리지 않는다면 몸은 남의 말밥에 오르지 않을 것이네. 마음은 귀와 눈보다 중요하다네. 그 예가 아닌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몸의 온전한 체(體)와 큰 용(用)이 진실로 한 치 넓이의 마음을 떠나지 않아 어딜 가든지 보존되지 못할 곳이 없다네.”

중거가 손을 치켜들며 말했다.

“이는 그대가 나로 하여금 몸 안에 몸을 숨기고, 보존하지 않음으로써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네. 감히 벽에 써 붙여 놓고 성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박지원, 「이존당기」 —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탈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세태에 대한 시각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주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5.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나’의 가난이 심각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농사 준비 중 나타난 문제를 제시하여 식구의 생계가 나아지기 어려운 형편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인물의 행위를 열거하며 종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책임을 다하기 힘든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E]: 대화의 형식을 통해 ‘너’를 떠나지 않으려는 대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6.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중거는 호기로운 성품을 지녀 술에 취하면 말실수가 잦았다.
- ② 장중거는 ‘나’의 조언을 바탕으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기로 결심하였다.
- ③ ‘나’는 일반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는 일이 운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였다.
- ④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훌륭한 인물마저도 몸을 보존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고 보았다.
- ⑤ 장중거는 몸을 보존하겠다는 뜻을 품은 후 경전에서 취해 온 글자를 문에 걸어 이를 드러내었다.

37.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이, ㉡에는 현실에 대한 인물의 동경이 드러난다.
- ② ㉠에는 과거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물의 반성이 드러난다.
- ③ ㉠에는 대상의 부재에 대한 화자의 슬픔이, ㉡에는 대상의 변화에 대한 인물의 아쉬움이 드러난다.
- ④ ㉠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근심이, ㉡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물의 막막함이 드러난다.
- ⑤ ㉠에는 목표를 상실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변민이, ㉡에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인물의 의지가 드러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가)의 화자는 궁핍한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여 그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실패하고, 가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자기 위안을 도모하고 있다. (나)의 인물은 자신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태도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여 은거를 시도한다. 글쓴이는 인물의 이러한 행위를 경계하고, 진정한 자기 보존은 올바른 도리가 아닌 것에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가)의 ‘온가지로 험박’하는 것은 화자가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돌이켜 생각’하여 ‘빈천’을 ‘내 분수’로 여기는 것은 화자가 자기 위안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스스로 죄수처럼 지’내는 것에 대해 ‘마침내 남들의 의혹을 자아내’게 될 뿐이라고 한 것은 은거에 대한 글쓴이의 경계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예가 아닌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글쓴이가 제시하는 진정한 자기 보존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부역 세금’을 ‘차’리는 것에 대해 ‘이리저리 생각’하는 것은 화자가 인식한, (나)의 ‘법으로 얹어 넣으려는 자’가 ‘생긴 것은 인물이 인식한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대도시 변두리 동네의 주민들은 취로 사업의 대가인 밀가루를 배급하지 않는 관청에 항의하고, 장석조와 곽 서기는 사태 무마를 위해 주민 셋을 매수한다. 이를 눈치챈 상호 는 고영만의 집을 찾아간다.

상호는 주먹으로 방고래가 꺼져라 내리쳤다. 그 서슬에 몸을 부스스 일으킨 고 씨는 상호를 외면하고는 비스듬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이것이 바로 그 밀가루여. 사람들이 **너도나도 애타게** 기다 리던 그 **밀가루**지. 내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텅텅 비었** 더라고.”

“비었다고!”

“다들 짐작은 했잖아. 그런데 장석조 씨가 한 사람 앞에 밀 가루 두 포대하고 ㉔ 종이돈 예닐곱 장씩 얹어 주면서 빠져 달라고 해서 그만 고것에 눈이 어두워 내가 덩썩 끌어안고 **한달음**에 집까지 **달려**오긴 했네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동네 사람들한테 죄송하고 볼 낮이 없어서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것 아닌감.”

“아니 그 개아덜 놈들이 하는 수작짓에 딴 사람도 아닌 행님 이 놀아나요?”

고 씨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상호를 돌아다봤다. 그의 눈은 물기 때문에 젖물려 있었다.

“이 사람아, 내가 이 발목 다친 것 때문에 달포째 엿가위질을 놀려 보질 못했어. 나는 그렇다 치고 자네 보다시피 병자 인 마누라가 오늘 아침에도 길 노인네 며늘아기한테서 얻어 먹은 밀가루 개떡이 창시를 채운 유일한 곡기여. 알아듣겠 어? ㉕ 그런데 거진 만 원 돈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뻘인가?”

“상호 아우님, 지발 우리 애아범을 모른 체해 주시구려. 이번 한 번만. ㉖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 뺏속에 사무칠 거구먼.”

고 씨의 마누라가 상호의 팔뚝에 매달려 통사정을 했다. 상 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행님, 지금 그 돈하고 고스란히 갖고 계시죠?”

“물론이지.”

“행님, 이것 지가 들고 갈 테니 얼른 아래로 내려가입시다. 그러잖으면 행님 앞으로 이 동네에서 영 사람질하며 고개 들고 사는 건 다 클러 먹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예? 사 람이 무릇 앞을 길게 봐야지 사람 구실이라도 허다가 죽는 겁니다. 생각 굳게 묵고 맘 정리되는 대로 요기 교회 마당으 로 나오소. 같이 내려갑시다.”

고 씨가 방고래가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마누라를 보듬어 안았다. 상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곧바로 길 노인네 며느리인 혜련 엄마가 막 찌어 낸 ㉗ 빳을 한 광주리 이고 찾아왔다. 마 침 출출하던 참이라 사람들은 광주리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 다. 광주리를 덮은 천을 걷어 내자 막걸리로 발효를 시켰는지 구수한 술내가 확 풍기는 찰빵이 올망졸망 머리들을 내밀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은 돌아갈 겁니다, 아버님.”

“오냐, 잘 해 왔다. 이 더운데 물술 다루느라고 고생께나 했겠다.”

“들큰한 게 맛 좋다, 야!”

“기왕이면 양꼬도 좀 넣었으면 좋았을걸.”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더니 그 심뽀군.”

광주리를 비운 혜련 엄마는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는 일어 섰다.

(중략)

고영만 씨는 눈을 비비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후덕한 인 상의 초로의 신사가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영만 씨, 제가 긴급 보고를 통해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관의 잘못된 관행과 횡포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또, 본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엄중 규명하고 책임자를 확실히 가려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그 러니 고영만 씨도 이제 그만 농성을 풀고 안전한 땅 위로 내 려오시지요.”

“㉘ 증말이당가? 증말로 시장이 내 앞에서 와서 이러코롬 사 과를 허는 게 증말이란가?”

“아무렴요. 제가 여러분의 공복인 시장입니다. 이봐 오 경장 뵈하고 있나? 어서 고영만 씨가 지붕에서 내려오면 병원으로 후송해 드릴 채비를 차리지 않고? 지프를 이리 대게.”

“예, 예.”

“시장님, 증말로 시장님이 내 앞에 와 기신 겁니까요?”

“하하하, 이렇게 직접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 지 말씀부터 들어주시지요.”

“예, 모든 요구 사항을 다 들어 드릴 테니 차제에 거리낌 없 이 털어놓으세요. 김 비서 적게나, 무엇입니까?”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㉙ 시장님, 이 촌한 것한테 일부러 이렇게 발걸음을 허셔서 애로 사항을 들어주 시다니 정말로 명관이십니다.”

“허허, 공치사를 들으려니 귀가 가렵습니다그려. 어서 요구 사항을 말씀하시고 거기 위험한 데서 내려오셔서 시원한 맥 주라도 한잔 나누면서 얘기를 하시죠.”

“아녀라우. 팬찮구먼요. 지 **요구 사항**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우선 취로 사업 나온 영세민들에게 전표대로 밀가루 두 포 반씩을 내주고, 어제 썩은 밀가루 받은 사람은 그것도 보상해 주겠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곽 서기를 비롯해서 창고를 **풀방구리 드나들** 듯하며 거덜을 내 버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시고 다 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조를 단단히 허 시구요.”

“예, 또요?”

“오늘 우연찮게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잡혀가는 사람 이 없으면 좋겠어라.”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 들어줄 테니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㉚ 예, 이 높은 데서 시장님을 내려다보면서 말씀드리는 것 도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밑에서 대 준 사다리를 타고 땅에 내려선 고영만 씨는 주위 를 둘러보며 득의만만한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달려든 경찰들이 그를 넘어뜨리고는 군홃발과 곤봉으로 간단히 곤죽을 만들었다.

“어이, 백 씨 빨리 그 양복 벗어 버리고 당신이 끄는 쓰레기 수레 밀고 와서 이곳을 대충 정리 좀 하라고.”

“예, 예.”

방금까지 시장 노릇을 하던 사내는 **오 경장의 지시에** 얼른

양복을 벗어 넘긴 다음 자신의 청소복을 걸치기 시작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가운데서도 고영만 씨는 그 모습을 붙잡아 두려고 두 눈을 부릅떴으나 허사였다.
- 김소진, 「장석조네 사람들」 -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서사를 현장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여 사건의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⑤ 장면의 전환에 맞추어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고 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던 것임을 제시한다.
- ② ㉡: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뜻에 따라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드러낸다.
- ③ ㉢: 질문을 반복하여 자신이 마주한 상황이 믿기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다.
- ④ ㉣: 상대방을 칭송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나타낸다.
- ⑤ ㉥: 말을 생략하며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41.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간의 권태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은 공간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한다.
- ② ㉠은 집단 간의 수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은 집단 간의 수평적인 질서를 형성한다.
- ③ ㉠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은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는 마음을 보여 준다.
- ④ ㉠과 ㉢에는 모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과 ㉢은 모두, 인물이 문제를 해결해서 얻어 낸 결과를 의미한다.

42.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다음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상을 정리해 보자.

1970년대 한국 사회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중심의 국가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 변두리에 정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소외 계층이 생겨났다.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일거리를 주고 그 대가로 현물을 배급하는 취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시행 과정에서 배급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여 소외 계층의 힘듦이 가중되는 문제가 존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 저항하기도 했으나 권력 계층의 억압과 기만적인 행태에 의해 그 시도는 쉽게 좌절되었다.

- ① 동네 사람들이 ‘밀가루’를 ‘너도나도 애타게 기다’린 것에서, 도시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소외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고 씨가 ‘창고 안’이 ‘텅텅 비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한달음’에 ‘달려’온 것에서, 부당한 현실에 맞서 저항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꺾 서기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창고에 ‘풀방구리 드나들 듯하’여 ‘요구 사항’을 야기한 것에서, 소외 계층의 삶이 취로 사업에서 일어난 비리 때문에 더 힘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오 경장의 지시’에 따라 사내가 ‘양복을 벗어 넘’기고 ‘자신의 청소복’을 입는 것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권력 계층의 기만적인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미소를 지으려 했’던 고영만 씨가 ‘곤죽’이 되고 ‘그 모습을 붙잡아 두려’고 한 행위마저 ‘허사’가 된 것에서, 소외 계층의 저항 시도가 권력 계층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 화자는 특정 인물에 주목하여 감정과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때 화자는 인물의 외양을 관찰하여 인물의 사연을 그리거나 과거를 추측하기도 하고, 비슷한 처지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인물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인물이 특정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질 경우 인물에 대한 화자의 감정과 인식은 해당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된다. 또 인물이 처한 시공간 및 상황은 ㉠ 다양한 묘사를 통해 구체화되어 시적 상황 및 인물의 처지를 부각한다.

(나)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밧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빈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찌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뽁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찼을 것이다
— 백석, 「팔원(八院) - 서행시초(西行詩抄) 3」 -

* 내지인: 식민지에서 지배국 사람을 일컫는 말.

(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회고 거대한 서류 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좁고 큰 방에서 서기(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

43. ㉠을 중심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시간적 배경을 촉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인물이 처한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시적 공간을 음성 상징어를 통해 묘사하여 긴박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다)는 시적 공간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여 공간의 초월적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다)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구체화하여 상황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하여 시간의 순환성을 드러내고 있다.

4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공간 외부의 인물을 관찰의 주체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 ② ㉢는 화자의 감정 변화를 촉발하는 다른 인물을 화자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③ ㉡와 ㉢는 모두, 다른 인물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조성하는 장치이다.
- ④ ㉡는 다른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는 다른 인물의 앞날을 전망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⑤ ㉡는 화자와 다른 인물 간 소통을 유도하는, ㉢는 화자와 다른 인물 간 소통을 방해하는 장치이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는 ‘진진초록 새 저고리’에 대비되는 ‘손잔등’을 통해 ‘계집아이’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부각하는군.
- ② (나)는 ‘차 안 한구석’에서 ‘눈을 찌는’ ‘어느 한 사람’의 행위에 주목하여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군.
- ③ (다)는 ‘눈이 퍼붓는’ ‘밤’의 ‘텅 빈 사무실’에서 화자가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한 사내’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는군.
- ④ (나)는 ‘계집아이’가 ‘찬물에 걸레를 찼을 것’이라는 것을 통해, (다)는 ‘나’가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는 것을 통해 인물의 외양을 바탕으로 과거를 추측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나)는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몇 해’ 동안 일했을 인물을 통해 일제 강점기 현실에 대한, (다)는 ‘거대한 서류 뭉치’로 변해가는 ‘건물’에서 ‘혼자 울고 있’는 인물을 통해 도시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